

장성군 민원실 대변신...“소통·배려 넘치는 개방 공간”

유리벽·자동문 설치 ‘열린 행정’ 구현 1·2실 분리 혼잡도·병목현상 해소 개인상담실 등 맞춤형 편의시설도

장성군이 딱딱하고 경직된 기존 관공서 민원실의 이미지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군민 중심의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2월 청사 공간 재배치 공사를 통해 중앙계단 통로를 중심으로 우측에는 민원1실, 좌측에는 민원2실을 새롭게 조성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절을 상징하던 물리적 장벽의 철거다. 기존의 답답했던 출입문과 문턱, 시야를 가로막던 콘크리트 벽을 과감하게 허

물고 그 자리에 투명한 자동 유리문과 유리벽을 전면 설치해 민원실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도록 했다.

완공 후 100여일이 지난 현재 투명해진 민원실은 장성군의 ‘열린 행정’을 상징하는 핵심 랜드마크 자리 잡았다.

군청을 방문한 주민 A씨는 “공간이 탁 트여 있어 쾌적할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안이 잘 보여 행정 업무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이라는 깊은 신뢰감이 든다”고 전했다.

공간의 시각적 개방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민원실을 1실과 2실로 완전히 분리해 ‘민원1실’은 제증명 발급, 여권, 부동산 실거래 등 생활 밀착형 민원 업무를, ‘민원2실’은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 (농지·산지 전용), 자동차 등록, 지방



장성군은 지난 2월 청사 공간 재배치 공사를 통해 중앙계단 통로를 중심으로 우측에는 민원1실, 좌측에는 민원2실로 군민 중심의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열린공간으로 조성했다. <장성군 제공>

세, 지적 관련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해 번잡했던 실내 혼잡도와 병목 현상을

대폭 해소했다. 또한 방문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

독립된 ‘개인상담실’ 2곳을 신설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통화할 수 있는 전용 ‘폰부스’를 입구에 별도로 마련했으며, 민원1실에는 대기하는 동안 스마트폰 등을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최신형 의자를 구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심우정 장성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민원실 전면 재배치는 군민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늘 소통하고자 하는 장성군의 진심을 물리적인 공간으로 구현해 낸 뜻깊은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청사를 방문했을 때 내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고 따뜻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광양시는 최근 광양읍 예담초등학교에서 고향올래(GO鄕 ALL來)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인 ‘달그락맹그락 1기’ 수료식·성과 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전국 청년들과 로컬 굿즈·콘텐츠 선배

‘달그락맹그락 1기’ 성과 공유회 매일 굿즈·이색 러닝코스 등 개발

광양시가 전국 청년들과 함께 지역 특색을 담은 로컬 굿즈와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선보이며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3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광양읍 예담초에서 고향올래 (GO鄕 ALL來)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달그락맹그락 1기’ 수료식·성과 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달 6일부터 3주간 ‘로컬 굿즈 및 기념품 제작’ 과정으로 진행된 이번 1기에는 경기, 광

주, 충북, 울산,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 9명이 참여했다.

교육생들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광양의 문화·관광 자원을 탐색하고, 이를 활용한 특색 있는 아이디어 상품들을 개발했다.

성과 공유회에서는 매일 인형과 매실 씨앗 굿즈, 매실 향수를 비롯해 광양읍 이색 러닝코스 (하트런·돌고래런), 광양 관광지를 기록하는 ‘해보자 프로젝트’, 전통 회화 기법으로 광양의 이야기를 담은 ‘시전지’ 작품 등 다채로운 결과물이 공개됐다.

특히 교육생들이 직접 제작해 SNS에 올린 지역 홍보 영상은 단기간에 누적 조회수 15만

회를 기록하며 지역 홍보 효과까지 톡톡히 거뒀다.

시는 수료생들의 참신한 기획이 실제 창업과 지역 정착으로 곧장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 지원하는 ‘청년 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과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짧은 기간임에도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광양의 자원을 활용해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닌 콘텐츠를 만들어 냈다”며 “이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만개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곽동현 기자

구례군, 여름철 관광객 맞이 안전점검

구례군은 3일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과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관광시설 및 관광지를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까지 실시되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군은 지리산정원, 구례수목원, 화엄사 등 관광객 이용이 많은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민박, 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농촌관광시설 총 62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한달 동안 소방시설, 가스·전기, 위생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구례군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매년

6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여름철 관광객 방문이 집중되는 피서철을 맞아 시설물 안전관리와 재난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수미 부군수는 “관광객과 주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철저히 개선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종 기자

여수시, 지역특화작물 발굴·브랜드화 착수

미발굴 지역 대상 연구용역 돌입

여수시가 급변하는 기후와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지역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특화작물 발굴 및 브랜드화’에 나선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특화작물 발굴 및 농촌융복합산업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세부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사진>

이번 용역은 읍·면별 농업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성과 차별성을 갖춘 작물을 발굴하고, 이를 융복합산업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여수시는 돌산(감), 화양(옥수수), 남면(방풍), 삼산면(숙) 등 굵직한 특화 브랜드를 안착시키며 농가 소득을 끌어올렸다.

이번 용역은 아직 고유 브랜드가 구축되지 않은 소라(단호박), 울촌(감자·당근), 화정(부추) 지역을 집중 타겟으로 삼아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1차 재배를 넘어 생산과 가공, 체험, 관광까지 하나로 엮는 ‘농촌융복합산업 모

델’을 구축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도출된 대표 특화품목을 바탕으로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 선점에 나설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화 브랜드를 육성해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다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보성행복마루 볼링장’ 개장...연중무휴 운영

해담 주식회사 시설설치 기부채납 14레인 설치...5층 롤러장도 운영

보성군의 야간 여가 문화를 책임질 ‘보성행복마루’ 내 대형 볼링장이 문을 열고 군민들을 맞이한다.

3일 보성군에 따르면 복합커뮤니티센터인 보성행복마루 내 민간 투자로 조성된 보성볼링장이 운영에 돌입했다.

건물 6층에 자리한 해담 주식회사는 해담 주식회사가 직접 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한 곳으로, 중계방송용을 포함한 총 14개의 최신식 레인과 7층 휴게공간을 완비했다.

볼링장은 연중무휴로 자정까지, 롤러스케이팅장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후 9시까지 문을 열어 군민들은 퇴근 후나 주말에도 다채로운 체육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군은 이번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약 11억원 규모의 막대한 시설 조성비를 아끼고, 향후 인건비 등 연간 2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성=임병연 기자



운영사 측은 향후 체육회와 협력해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교육기관과 연계한 방과 후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철 보성군수 권한대행은 “볼링장과 롤러장 가동이 저녁과 주말 놀거리를 제공해 군민들의 일상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대회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민간 사업자와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사업비 410억원이 투입된 보성행복마루(구 보성복합커뮤니티센터)는 체육시설을 비롯해 작은도서관, 가족센터, 보성소리공연장, 군의회 등을 두루 갖춘 보성군의 핵심 복합 거점이다. /보성=임병연 기자

담양군,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주소 편의 향상

담양군은 3일 “주소 식별 편의 향상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관내에 설치된 10년 이상 노후 건물번호판을 대상으로 무상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물번호판은 도로명주소를 표시하는 주소 정보시설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우편·택배 배송,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이번 사업은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설치된 건물번호판 가운데 훼손이나 망실, 색바랜 등으로 주소 식별이 어려운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담양=정승균 기자

군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담양읍과 봉산면, 창평면, 용면, 월산면 일원에 설치된 노후 건물번호판 7천399개를 정비했다.

올해는 자체 실행조사를 거쳐 대대면과 금성면, 무정면을 중심으로 노후 건물번호판 2천420개를 교체할 계획이다.

안영선 민원과장은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은 군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소 정보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화순군, 장마철 대비 고추 병해충 방제 당부

매개충 전염...약제 살포·제초 필수

화순군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해충 발생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고추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예방과 예방 중심의 방제를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

고추 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는 꽃노랑총채벌레나 진딧물 등 매개충에 의해 전염되며, 감염 시 치료가 어려워 발견 즉시 식물체를 제거해야 한다.

매개충 방제를 위해선 약제를 충분히 살포해야 하며, 주변의 기주잡초(병원균이나 해충이 번식하는 잡초)를 함께 제초해야 한다.

또한 장마철에는 탄저병과 풋마름병(청고병) 등은 빗물을 통해 균이 전염되므로 강우 전 보호용 살균제를 살포하고, 미리 배수로를 정비해 물 고임을 방지해야 한다.

이밖에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



중심의 방제와 정기적인 예찰 등이 병행돼야 하며, 농약허용기준제도(PLS) 등록 약제 중 계통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은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품질 고추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수시로 포장을 점검하고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센터에 문의해 피해 확산을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